

증시 활황에 광주·전남 상장사 시가총액 50조 돌파

지난달 1조5833억 ↑...대한조선 43% 성장 견인 금호타이어·한전KPS도 한달새 2700억이상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2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 39개사(유가증권시장 16곳·코스닥 시장 23곳)의 시가총액은 50조33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833억원(3.2%) 늘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47조 5875억원으로 전월 대비 4.3%(1조 9673억원) 증가한 반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조746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0%(3740억원) 감소했다.

시가총액 증가는 지난 1월 말 2조6814조원이었던 대한조선의 주가가 3조8333억원으로 43.0% 증가한 영향이 컸다.

대한조선은 한달새 1조1519억원이 늘며 시가총액 증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조선업계의 실적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던 점이 최근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전체 및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체	지역별(비중)		
		광주	전남	계
2026년 1월말	49,374,993	35,503 (0.1)	452,000 (0.9)	487,503 (1.0)
2026년 2월말	57,898,110	38,219 (0.1)	465,116 (0.8)	503,335 (0.9)
전월 대비	변동액 8,523,117	2,716	13,117	15,833
	변동률 17.3	7.7	2.9	3.2

있다.

IBK투자증권의 오지훈 연구원은 "중형 조선사는 이미 지난 2024년부터 수주 물량 매출 실적을 대형 조선사보다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며 "미국 이란 전쟁도 조선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타이어와 한전 KPS가 각각 2758억원(15.9%), 2700억원(10.7%) 증가한 2조 51억원, 2조7900억원으로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오이솔루션(372억원), 와토스코리아(341억원), 우리손에프앤지

2026년 2월말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3사

단위: 억원

순위	유가증권				코스닥			
	종목	지역	시가총액	증가액	종목	지역	시가총액	증가액
1	대한조선	전남	38,334	11,519	오이솔루션	광주	2,360	372
2	금호타이어	광주	20,051	2,758	와토스코리아	전남	815	341
3	한전KPS	전남	27,900	2,700	우리손에프앤지	전남	1,327	190

제공=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

(190억원) 등이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중심 성장세에 2월 말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중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0.9%로 전월보다 0.1%p 감소했다.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7

조2946억원으로 무려 20.5%(1조8820억원)가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5조1874억원으로 전월보다 15.8% 감소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2조1073억원으로 30.2%가 줄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수자원 보호 활동 광주공장 인근 하천 플로깅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의 핵심 자원인 물, 맥주 생산의 필수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와 광주, 이전 3개 생산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공이 함께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박재연 오비맥주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광주공장 연못 인근에 매화·벚꽃나무를 심어 토양 침식을 줄이고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돕는 등 장기적인 수질 보호와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직원들의 물 사용 효율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물 절감과 공정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비맥주는 공정별 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설비 세척 시 품질 기준에 따라 공정을 회수·재활용하는 등 생산과정 전반에서 물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물 부족, 수질 오염에 대응해 맥주 생산에서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아 기자 aura@gwangnam.co.kr

“안정적 자산 성장·사회적 책임 강화 역점”

이남기 신임 장성신협 이사장 취임식 대신 쌀 나눔행사 눈길

장성신협은 최근 이남기 이사장의 취임식을 대신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취임식 비용을 절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겠다는 이 이사장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기부된 '사랑의 쌀' 2500kg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성군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분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기 이사장은 장성신협에서 이사와 부이사장을 역임하며 조합 운영과 지역 금융 발전에 힘써 왔으며, 이번 제11대 상임 이사장으로 취임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장성신협은 최근 이남기 이사장의 취임식을 대신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장성신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경영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장학사업,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확대해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상품을 확대해 조합원과 지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5년 연속 흑자 경영의 전통을 이어가 안정적인 자산 성장

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남기 이사장은 "취임의 기쁨을 혼자 나누기보다 장성신협을 키워주신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신협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범농협 협력 강화 '시너지협의회'

농업·농촌 가치 확산 추진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농협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 시너지협의회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은행, 보험, 농협유통, 자산

관리 등 광주지역에 소재한 범농협 사업체 간 협의체로, 각 법인 대표 2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전심 운동' 전개 △광주·전남 통합에 대비한 상생 모델 구축 △각 법인의 역할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2026년은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기에 만큼 농협이 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통을 바탕으로 범농협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생명 전남총국 '치매보험 전남 1호' 가입행사 경도 치매부터 중증까지 보장...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 가입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10일 전남 고흥군 흥양농협에서 전남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NH올원더플러그안심치매보험 전남 1호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이 'NH올원더플러그안심치매보험' 전남 1호 가입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NH올원더플러그안심치매보험'은 중등도와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 치매 진단 시에도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치매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전환 이후에도 치매가 발생하면 잔여 보장금액을 활용할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인 최경도 치매(CDR 0.5)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입증된 '레캄비' 등 표적 약물 치료비도 보험업계 최대 수준인 46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급여 치매 치료자금과 종합농·축협 연도대상에서 흥양농협의 4년 연속 수상을 비롯해 진도농협, 여수축협, 흥양농협의 2년 연속 수상 등 총 12개 사무소와 개인 부문 21명이 수상하는 성운점속 NH농협생명 전남총국장은 "이번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10일 전남 고흥군 흥양농협에서 전남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NH올원더플러그안심치매보험 전남 1호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번 수상품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중등 단계까지 전 과정을 보장해 고액이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많은 지역민들이 가입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지난해 병원 치매 통원급여금, 급여 치매 검사비, 장기요양 주야간 보호 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마련해 치매 진행 단계에 맞는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고흥서 농기계 순회수리 점검 정비단·전문기술자 참여...120여대 무상 정비

농협 전남본부는 10일 고흥군 풍양농협에서 '2026년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수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영농 준비를 돕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작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전 접수된 트랙터와 경운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예취기, 동력운반기 등 농기계 120여대를 대상으로 무상수리와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문기술을 갖춘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NH농기계순회정비단'과 농기계 생산업체 기술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부품 교체와 정비,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호남지재유통센터는 필요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며 원활한 정비 작업을 지원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해에도 농기계 350여대에 대한 무상수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해 400여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지역에 긴급 정비 인력을 투입해 농기계 수리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가 영농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심협력의 자세로 농업 현장에 적극 지원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